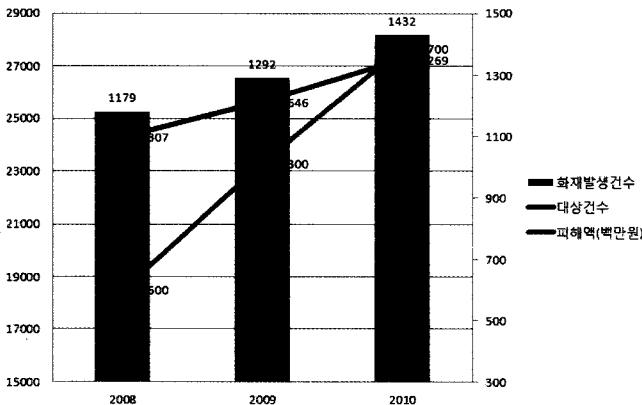


2010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2010 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482호 1973.2.6)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서 2010년도(1.1~12.31)에 발생한 1,432건의 화재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이며, 이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8월 발간된 『2010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2009년부터 한국화재보험협회 특수건물정보시스템과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 예방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은 국가 화재자료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7년까지의 소방기관 방문조사 방식보다 한층 다양하고 신뢰성 있게 개선되었으나 국가 화재자료와 기존 분석 항목과의 불일치로 인해 2008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부터는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2010년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아파트와 공장 업종에 대한 상세 화재통계 분석이 추가되었다.

〈표 1〉 최근 3년 간 화재발생 건수, 특건대상 건수, 피해액 추이



특수건물의 대상건수는 2006년 20,823건, 2007년 22,624건, 2008년 24,307건, 2009년도에는 25,646건, 그리고 2010년도에는 27,269건이었으며, 화재발생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2006년 661건에 89억원, 2007년 518건에 159억원, 2008년에는 1,179건에 185억원, 2009년에는 1,292건에 233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1,432건에

277억원으로 집계되었다<표 1>. 또한 특수건물의 대상건수에 대한 화재발생률은 2009년의 5.04%보다 0.21%포인트 증가한 5.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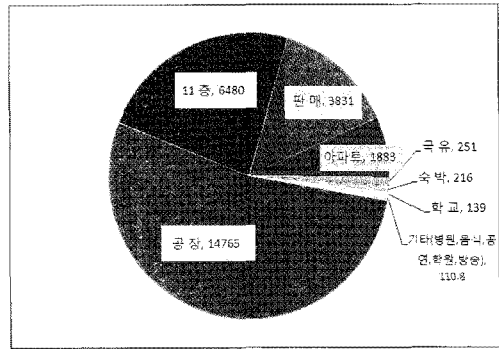
2009 회계연도(2009.4.1~2010.3.31) 화재보험 통계에 따른 특수건물과 비특수건물의 손해율은 각각 59.4%와 47.2%로 나타났다. 2008년도 특수건물 손해율 41.8%와 비특수건물 손해율 34.2%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한 물건 1건당 손해액은 특수건물이 2천9백5십만원, 비특수건물은 4천1백8십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건당 평균보험료 대비 손해액 규모는 특수건물이 7.0배인 반면 비특수건물은 326.1배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안전 점검을 받고 방화관리가 잘 되는 대형 특수건물의 경우 손실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소형의 비특수건물은 손실제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0년도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개요를 살펴보면, 화재건수는 1,432건으로 전년 1,292건 대비 140건(10.8%)이 증가하였다. 소방방재청 집계자료에 따른 특수건물의 전체 화재피해액은 277억원으로 전년 233억원 대비 44억원(18.7%)이 증가하였고,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은 1,933만원으로 전년 1,805만원 대비 128만원(7.1%)이 증가하였다.

특수건물 업종별 재산피해액은 공장(148억원), 11층(64억원), 판매(38억원) 순으로 높았으며, 3개 업종의 재산피해액(251억원)은 특수건물 전체의 90.6%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2>. 11층은 부산의 초고층건물 화재 1건의 재산피해액 57억7천여만원이 반영되어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업종에서도 재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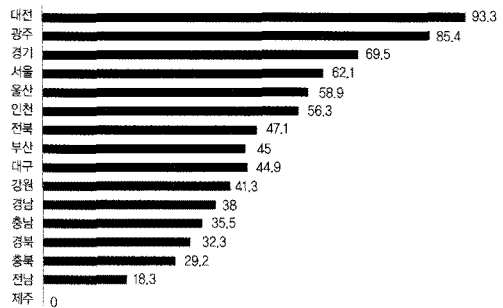
해액 37억여원의 화재 1건이 반영되어 재산피해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업종별 화재피해액(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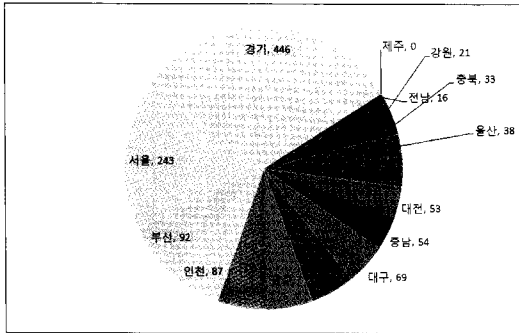
특수건물 전체에 대한 1,000건 당 화재발생빈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93.3건), 광주(85.4건), 경기(69.5건), 서울(62.1건), 울산(58.9건), 인천(56.3건), 전북(47.1건), 부산(45건), 대구(44.9건), 강원(41.3건), 경남(38건), 충남(35.5건), 경북(32.3건), 충북(29.2건), 전남(18.3건), 제주(0)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지역별 화재발생 빈도(특수건물 1000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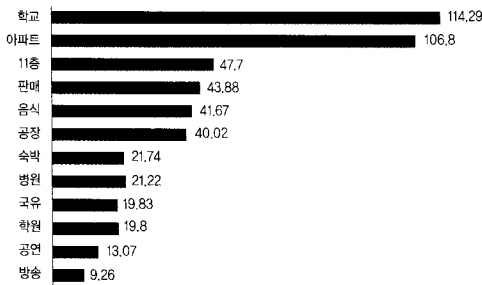
지역별 화재발생건수는 경기(446건), 서울(243건), 부산(92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수건물의 지역별 분포도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

〈표 4〉 지역별 특수건물 화재발생 건수



업종별 화재발생빈도를 특수건물 대상건수 1,000건당 기준으로 하면 학교(114.3건), 아파트(106.8건), 11층(47.7건), 판매(43.9건), 음식(41.7건) 순으로 높게 나왔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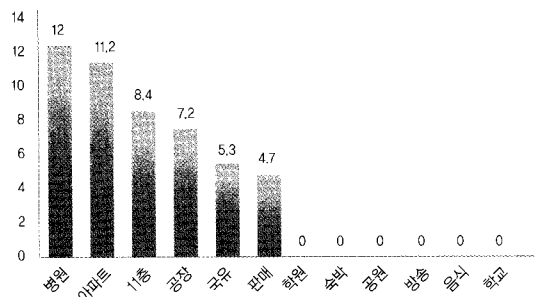
〈표 5〉 업종별 화재발생 빈도(특수건물 1000건당)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38건(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377건(26.3%),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223건(15.6%) 순으로 나타났다. 방화(放火) 및 방화의 심 건수는 68건(4.8%)이었다〈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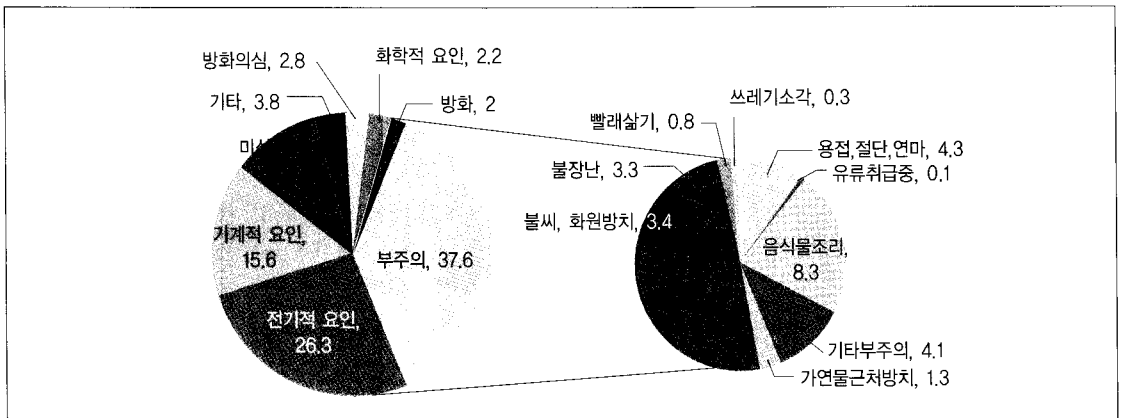
인명피해는 125명(사망 11명, 부상 114명)이었으며, 업종별 사상자는 아파트 69명(55.2%), 공장 39명(31.2%), 11층 10명(8.0%), 병원이 3명(2.4%) 순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업종별 화재 100건당 사상자 수



그 중 사망자는 아파트(10명)와 공장(1명) 업종에서만 발생하였다. 사망 원인을 보면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이었고, 그 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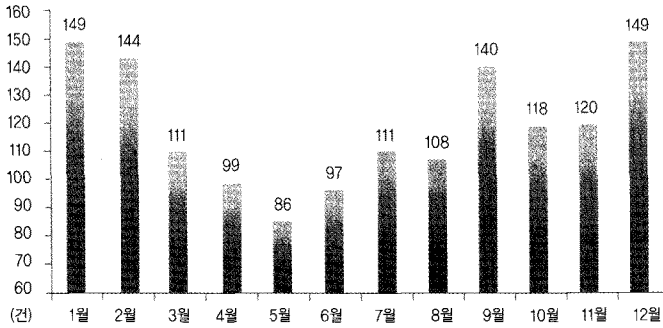
〈표 6〉 주요 화재 원인(단위: %)



는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2명,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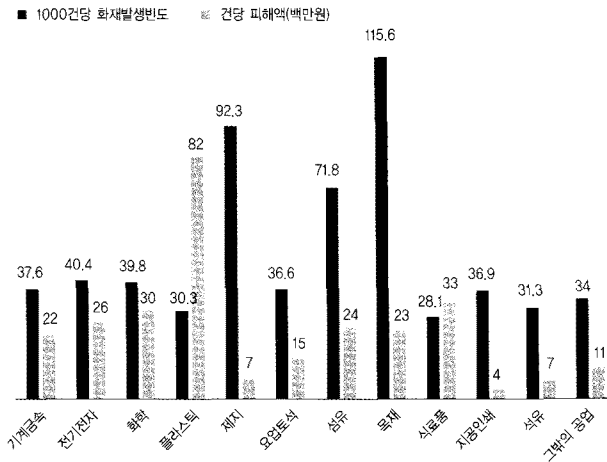
월별 화재동향으로는 1월, 12월에 가장 많은 화재로 보였고, 상대적으로 5,6월에 적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월별 화재 발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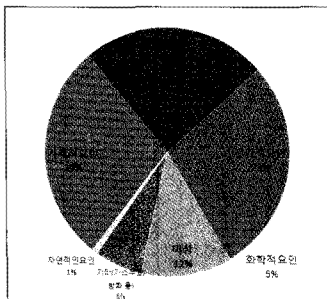


공장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목재(건물 1000건당 115건 화재발생)와 제지 업종 등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며, 화재발생시 건당 피해액은 플라스틱(8200만원)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하게 큰 수치를 보였다<표 9>.

<표 9> 공장 업종별 화재발생빈도 및 화재건당 피해액



<표 10> 공장 화재원인



공장의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열, 과부하 등의 설비의 기계적 원인(29%)과 작업 시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24%) 주요한 원인을 차지하였다<표 10>. ☹